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

5/30 월

출 40:20-21
20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 덮개를 두었다.
21 그런 다음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달아 증거궤를 가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골 2:9
9 신격의 모든 총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엢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4:2, 23
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계 21:3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5/31 화

출 25:10-11
10 “그들이 시뒸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되, 길이가 이 규빗 반, 너비가 일 규빗 반, 높이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여야 한다.”

11 그것에 순금을 입히되 안과 밖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

롬 3:25-26
25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26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벧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2:17
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 9:4
4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요일 2:2
2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요일 4:19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6/1 수

민 10:35-36
35 궤가 나아갈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흠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36 궤가 설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삼상 4:3-4, 22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족속 앞에서 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와 우리 가운데 두어서,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합시다.”
4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읍들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22 그 여인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

수 3:3
3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거든, 여러분은 묵었던 곳을 떠나 진군하여 그 뒤를 따르십시오.”

출 40:38
38 이처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온 집이 보는 앞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6/2 목

삼상 4:11
11 게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계 3:19-20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삼상 4:21-22
 21 그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기 때문이다.
 22 그 여인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

삼상 2:30b, 35
 30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한다. 내가 너의 집안과 너의 조상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선포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쁨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왕상 8:48
 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렐 32:39
 39 나는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6/3 금

삼하 6:12
 12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보고가 다윗왕에게 들어가자 다윗이 기뻐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왕상 8:6, 11, 18-19
 6 제사장들은 여호와와 언약궤를 그 자리, 곧 집의 맨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의 그룹들 날개 아래에 들였다.
 11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다.

19 하지만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네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다.’
렐 2:13-15, 20
 13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6/4 토

출 40:21, 34
 21 그런 다음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달아 증거궤를 가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34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렐 3:16-17, 18-21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 21:1-4, 10-11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6/5 주일

시 132:1-8, 13-16
 1 오, 여호와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고통을,
 2 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능력 있으신 분께 서원하였는지를.
 3 “저는 제 집 천막에 들지 아니하고 제 침상 자리에 오르지도 아니하며
 4 제 눈에 잠을, 제 눈꺼풀에 졸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5 여호와를 위한 한 곳, 야곱의 능력 있으신 분을 위한 장막을 찾기까지.”
 6 보아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구나.
 7 우리가 그분의 장막에 들어가 그분의 발 받침대 앞에서 경배하리라.
 8 오, 여호와님! 일어나시어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드십시오.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대네.
 14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
 15 내가 이곳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며 이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16 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치리라.